

“광주 장애학생수 매년 증가...특수교사 늘려야”

특수학급 학생 수 4년 새 500명 증가...교사 정원 확대 등 필요 교사 비율 2020년 학생 3.7명당 1명·올해 학생 3.9명당 1명

광주지역 특수학교·학급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수는 사실상 의무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외 계약직 교사까지 포함하더라도 의무 배치 기준에 겨우 근접하는 상황이며,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인력 충원 등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나운(민주·북구6) 의원은 5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

사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사 충원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특수학교(급) 학생 수는 2020년 2417명, 2021년 2471명, 2022년 2593명, 2023년 2752명, 올해 291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특수교사 수는 정원 외 계약직 교사를 포함해도 학생 수에 비해해 겨우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령’에 따라 특수 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기준 광주 특수 교사 비율은 학생 3.9명당 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원 외 계약직 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의무 배치 기준에 못 미친다. 올해 기준 정원 외 계약직 교사(80명)를 제외하면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는 4.37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하는 특수교육법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특수 교사 정원 확대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급) 부족도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에는 올해 광산구에 문을 연 선예학교를 포

함해 공립 4곳·사립 2곳 등 총 6곳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학생 수에 비교했을 때 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선유학교, 선광학교, 선명학교 등 일선 특수학교에서는 교실이 모자라 컨테이너 모듈 교실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개 특수학교 중 3개 학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3개 학교에는 스프링클러마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3개 학교 중 2개 학교는 스프링클러 재배치를 예정하고 있지만 한 곳은 오래된 건물 구조 탓에 천장 높이 등 건축 구조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화재 시 상대적으로 대처가 더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오히려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면서 “향후 재배치가 예정된 2개 학교는 안전한 환경과 교육 공간 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특수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교육청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 문제라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실마리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학급과 학생 수에 비례한 특수교사 배정을 요청했으며, 오는 12월께 학급 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정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학교 부족 문제 역시 신실을 고민하는 등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5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앞두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을 이어받아 전문 간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18 위자료 형평성 논란 해결책 찾는다

기념재단, 11일 5·18기념문화센터서 토론회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수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보도(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지금까지 국가 배상 현황을 평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5·18기념재단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금까지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사·회·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를 공론화하기 위해 열린다.

5·18 피해 당사자 등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특별

법을 제정하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편'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로는 양승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종세 부산울산경남 5·18민주유공자회, 박현욱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5·18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과 소멸시효 적용의 문제점,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악명높은 형제복지원 3차례나 수용...“국가 1억 배상” 판결

광주지법 “소멸시효 없는 사안”

참혹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수용된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A씨는 1976년 부산지역 인근에서 부랑자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4년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지만 3년 뒤인 1983년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붙잡혀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이듬해 탈출했다.

탈출한 지 1년이 지나 A씨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붙잡혀 세 번째로 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형제복지원에서 벗어났다.

A씨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돌가루 포대로 용변을 처리했고, 배가 고파서 무덤가 흙덩어리를 먹었다. 강제노역이 다반사였고 탈출하려다 붙잡혀 관리자(중대장)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며 “A씨 사건은 국가가 권위주의 통치시기 헌법상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배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87년까지 부산시에 있었던 부랑인 강제수용소다. 형제복지원은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노숙자, 부랑자, 일반 시민까지 끌고 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수용자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사실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천억 사기’ 영암 출신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구속송치

경찰이 2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5000여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을 구속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과 간부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주요 영업책 등 19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토지와 건물 등 14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추가 추징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 등은 2021년 9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 2209명을 속여 5281억원가량을 쟁거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5~8%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김 회장은 고향인 영암에 장학금과 기부금 등을 지원하고, ‘명망 있는 사업가’로 홍보하며 신뢰를 얻었다.

투자금의 80%가량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금액은 개발 구역 내 토지를 매입에 쓰였지만, 구매된 토지는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기획부동산 사기로 74억여원을 가로챈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해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